

# 시·도 의장 선거 물밑작업 ‘치열’...내달 개원

광주, 정무창·조석호·박미정 등  
사실상 강기정·이용섭 ‘대리전’  
전남, 4선 서동욱 vs 3선 김성일  
진보·국힘·정의당 반발 ‘변수’



강기정 당선인, 인수위 실국 업무보고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9일 광주도시공사에 마련된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내달 의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광주·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70% 이상이 초선으로 물갈이된 시의회에서는 ‘강기정 대 반 강기정’ 2차전이, 도의회에서는 두 명의 중진위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6명의 재선의원 중 4명이 시의회 의장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정무창 의원(광산2)·조석호 의원(북구4)에 더해 여성 최초 의장을 꿈꾸는 박미정 의원(동구2)·임미란 의원(남구3)이 나섰다.

이번 의장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의 2차전이다. 강기정 당선인을 지지한 의원들과 이용섭 시장을 지원했던 의원들이 대결하는 양상이며, 뒤에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

이 있다. 여기에 의원정수의 70% 이상을 차지한 초선이 후보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표심을 규합해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관련 포인트다. 일부 후보는 과거 주류, 비주류로 갈려 이전투구 및 혼탁양상의 ‘감투싸움’은 안된다고 초선 의원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독점 체제로 인해 사실상 당내 경선이 나 마찬가지인 의장 선거에 광주시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과거 8대 의회 의장 선거

와 같은 집안싸움은 안 된다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도 다음 달 6일 제12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을 시작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 9명을 선출한다.

현재 의장 후보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다선(4선)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의원(순천4)과 11대 의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3선의 김성일 의원(해남1)이 뛰고 있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진용을 짜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서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양 부의장에는 3선의 김태균 의원(광양2)과 재선 최무경 의원(여수4)이 나섰다, 김 의원 역시 3선 이광일 의원(여수1)과 재선의 전경선 의원(목포5)이 부의장 후보로 합을 맞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도의회 의원 총원은 61명으로 민주당 56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정한 뒤 다음 달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진보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까지 4당 체제이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사실상 의장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의 자체 경선을 놓고 진보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반발할 수도 있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근산·오선우 기자

##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전국 최다’

도, 31개소 중 13개소 선정

전남도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들녘(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추가 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전국 31개소 중 전남이 13개소(41.9%)를 가져왔다. 전남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 55억 원 중 국비 27억 원을 지원받고, 지

방비 22억 원과 자부담 6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논 타작물 재배,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신 오는 2024년까지 30ha 이상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순증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사업 확보 성과는 전남도가 농식품부 평가에 대비해 경영체별 사업계획을 사전 컨설팅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는 올해 본 사업으로 선정된 들녘경영체 78개소와 이번 추가 사업을 더해 올 한 해 총 91개소, 119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별로 교육·컨설팅 64개소, 시설·장비 지원 27개소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법인, 농협 등으로 농식품부의 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한 25인 이상이 참여한 경영체다.

참여 경영체는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규모화·조직화해 공동경영을 해야 한다. /길용현 기자

## 대형유통업·해외바이어, 전남 농식품 ‘주목’

수출상담회서 115건 입점 결정

전남도의비교우위자원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풍부한 일조량 등 천혜의 자연에서 나는 농수축산물로 만든 우수 제품이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해외바이어에게 주목받았다.

전남도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나주씨티호텔에서 국내 대형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 해외바이어 등을 초청해 진행한 ‘2022년 상반기 정기 품평·상담회 및 수출상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전남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jmall.kr)’에 입점한 쌀, 고구마, 전복, 약과 등 우수 농수산물 기업과 나주곰탕

해초샐러드 등 가공기업을 포함 전남 82개 기업이 250여 차례로운 농수축산 식품 및 가공품을 선보였다.

국내 대형유통업체에선 GS홈쇼핑,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현대백화점, 11번가, 위메프, 우체국 쇼핑, 티몬, 롯데마트, 카카오메이커스 등 25개사의 분야별 상품기획자 46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총 8개국 15명의 해외 바이어가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 기업은 각 6회씩 1대 1 국내 유통 전문 상담을 받았다. 총 369건의 상담 중 입점 결정 115건, 입점 검토 175건의 성과를 올렸다.

20개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실적을 진행, 36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바이어들은 전복, 김, 유자음료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길용현 기자

## 시, 13일부터 승강기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승강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

적인 홍보와 점검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업자의 점검과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26개 승강기사

업자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업체별 현장 1~2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CCTV 등을 통해 실제 점검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조업자의 경우 승강기 부품 인증사항, 등록기준 준수 등이며, ▲유지관리업자의 경우는 공동도급기준 준수,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등이다. /오선우 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 이제 “여보야” 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가장 스마트한 결혼방법 “여보야” 는 고비용의 불편일률적인 결혼정보 서비스가 아닌, 농어촌 등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신개념 결혼중개 서비스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와 최신 시로 나의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여보야 시로 쉽고 빠르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